2015년 8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2015년 회원의 날 안내

- 날짜 : 2015년 0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행사(전주대학교 일원), 숙박(초남이 성지)
- 행사일정 :

<8월 22일(1일차)>

· 14:00 ~ 14:30 준비 및 등록(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 14:30 ~ 15:00 인사말(이사장, 원장), 연구원 현황보고
· 15:00 ~ 16:00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GHS) 강좌
· 16:00 ~ 17:00 천연 방충제 만들기 체험
· 17:00 ~ 17:40 레크리에이션(OX퀴즈)
· 17:40 ~ 18:30 초남이 성지 이동 및 도착
· 18:30 ~ 19:00 초남이 성지 소개
· 19:00 ~ 21:00 저녁식사 / 경매
· 21:00 ~ 자유시간

<8월 23일(2일차)>

· 08:00 ~ 09:00 아침식사
· 09:00 ~ 11:00 순례길 체험

- 숙박 장소는 초남이 성지 교리당입니다.
- 가족단위 캠핑 텐트도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용신청 바랍니다.
- 개인 세면도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장품 경매에 참가하실분들은 연구원에서 연락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한지산업관)
※ 초남이 성지 주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8-5

○ 해방 70주년, 한일회담 50주년 맞이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기념행사

◆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강사 : 이규수(고려대)
- 일시 : 2015년 8월 14일(금) 15:30~17:3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2층)

◆ 일본군 '위안부' - 망각에 대한 저항, 미래의 책임

- 강사 :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10:00~12:0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2층)

<기념공연 및 낭독회>

- 배우 : 아리마 리에(有馬理恵)
-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14:00~16:0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컬 아카데미(5층)
- 주제 : 나의 평화를 향한 몸부림

*** 아리마 리에(有馬理恵) :**
: 배우. 일본 하이유자(俳優座) 소속. 일본평화위원회 대표이사. 2013년도 일본신극배우협회 「시와낭독(詩と朗読) Mini Festival」 관객상 수상. 2012년 미국 루이비르 국제영화제 최우수 도큐멘타리상 수상작품『円空 －今を生きる－』에서는 円空의 어머니역으로 출연. 동아시의 평화와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 왕기석 이사 공연 안내

- 시간 : 2015년 8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 내용 :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광복 7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추진단이 주관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공연 -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께서 청년 김구로 열연할 예정입니다. 공연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포스터 참조

○ 이영규 감사 방문

- 날짜 : 2015년 08월 03일(월)
- 내용 : 지난 8월 3일에 이영규 감사가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께서 이전 후 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 **2015년 7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날짜 : 8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 장소 : 한지산업관 202호

• 참석 : 홍성덕 운영위원장, 김건우, 한명수, 이미경, 최우영, 하태진 운영위원

회원의 날 관련하여 주요 진행 방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에서 조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4~15 양일간 열리는 GHS 광복기념 행사에 사무국에서 행정실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이미경 위원이 준비해주신 "연구원 복달임"이 있었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10일(월) : 주간회의

○ 08월 13일(목) : 법인월례보고

○ 08월 14일(금) : GHS기념강연(이규수)

○ 08월 15일(토) : GHS기념강연(한혜인), 기념공연(아리마리에)

■ 역사속의 오늘

○ 김경숙 - 1979. 8. 11

: 그녀는 58년 개띠로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태어났다.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떡장수로 나선 어머니 대신 동생 둘을 건사해야 했던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국민학교 졸업을 끝으로 그녀의 학창시절은 끝이 났다.

사춘기도 채 넘기지 못한 나이로 그녀는 공장에 가야 했다.

공장을 전전하던 그녀가 1976년에 들어간 공장은 가발 생산 기업 YH무역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김경숙이 입사하기 전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래도 김경숙은 꿈을 놓지 않았다. 힘겹고 고달파도 꿈을 놓치 않으려 발버둥치던 그녀는 꾹꾹 눌러 쓴 일기장 속에 스스로를 담았다. 그 일기장 속에는 하소연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글 한 자라도 깨우치며, 시간의 여유를 갖지 않고 주어진 시간 속에 지내고 있지만 하나의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1978년 4월 17일 일기 中)

당시 YH 무역을 세웠던 장용호는 벌써 미국으로 튄 지 오래였고, 그 동서 진동희는 회사를 말아먹기만 하다가 결국 1979년 3월 공장을 폐쇄해 버린다.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하지만 때는 바야흐로 시베리아 공화국 유신 시대였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대통령 긴급조치로 무력화되었던 시기,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곳은 드물었다.

결국 YH 여성 노동자 수백여 명은 야당인 신민당사에 집결한다.

당연한 수순으로 경찰은 신민당사를 덮쳤다. 신문 기자고 야당 국회의원이고를 가릴 것 없이 몽둥이와 주먹질이 퍼부어졌다.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와중에 김경숙은 죽음을 맞는다.

진압을 마친 경찰은 김경숙이 "동맥을 끊고 뛰어내렸다."고 했으나 부검 기록 어디에도 동맥을 끊은 흔적이 없었고 손등엔 쇠파이프 자국이,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인가에 가격당한 상처가 나 있었다. 누구에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성실한 여성 노동자는 스물 둘의 인생을 마쳤다.

"준곤이한테는 이 누나가 꼭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엄마가 대신 잘 말해 주세요. (준곤이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녀가 죽기 사흘 전에 쓴 편지의 일부다.

○ 그해 광복절의 총성이 불러온 한국사 - 1974. 8. 15

: 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이 쏜 총을 맞고 절명했다.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어쩌면 문세광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그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육영수 여사가 흉탄에 맞기 1년 하고도 1주일 전,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김대중 납치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검거된 문세광은 놀랍게도 좌익 조총련이 아닌 우익 쪽 재일한국인거류민단 소속이었고 (정부에 따르면 골수 공산주의자로서 민단 분열을 꾀하려 위장 가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거류민단 단비 수금원부터 휴지 수집상, 유리창 청소 등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분노했던 것이 사건의 동기라고 주장했다. 그가 골수 공산주의자였다는 정부 당국의 말이 맞다고 해도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일 마다 않고 일하던 그를 권총 찬 암살자로 만든 가장 큰 계기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어쨌건 그는 많은 의혹 속에서 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다. 렌트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 삼엄한 기념식장에 비표도 없이 들어가서는 연단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리고 육영수 여사는 이 날 세상을 떠났다.

그 뒤 여러 가지가 바뀐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저자세로 지내던 일본과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처음에는 재일 한국인의 범죄로서 사과할 일 없다고 딱 잘라 버린 일본 정부였지만 "일본에서 자란 미국인이 일본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쐈다면 일본 정부가 그럴 수 있겠느냐"며 거세게 대드는 한국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일본은 일년 전 한국 정부처럼 진사 사절을 한국에 파견했다.

당국은 사건의 배후가 조총련과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테러임을 밝히고 당시 들끓었던 국민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공분을 적절히 결집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 국내외적으로 그동안 궁지에 몰려 있던 정권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 유신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후 한국 역사의 분수령이 펼쳐진다.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영애'가 모친의 비극을 맞아 귀국하여 청와대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이다.

1974년 8월 15일 한발의 총성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을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였다.